



Assignment #2

필요 발견하기

이방인

G201992002 천 상진

G201992003 홍 기림

방재운.

외} → 제1군 프라하 6기구. 인터

중세이트와 함께 ~~제1군~~ → 제1군 6기구 기숙사 → ~~제1군~~ / ~~제1군~~
(같은 시기인 듯)

제1군 가기전기는 전기. / 영어연금. 영국에서는 영국방언이.
가기금전기. (중국) ← 생활기술과 접촉됨.
프라하 외곽이어서 영어 X

<기대했던 것. >

• 영국인과 영어 사용... 그 자체가 늘 것이다.

↳ 한글이 영어가 아니었기에 더 많았다. 제1군사장들이 영어는 잘 하지 못함.

↳ 프라하 외곽이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 번역기, 책,

• 영국에서는 드러스 없는 프라하에 대한 장점

↳ 영국인들은 초기에 안전한 불수거였다. (다른 나라가 비슷해서)

↳ 관광지 이외의 모든 경험은. 고로. 사람들은 침침했던 은둔적인 편.

• 영국에서 찾았던 제1군.

↳ 가장 처음 느낀 차이점: 여행을 찾다. 서로처럼 농담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제1군사장은 하루종일 사장을 관찰해보니. 자유롭다. 개인적이다.

번역기를 들고가며,

그냥 사서 먹어놓기. 바쁜 일상에

부사: 초기에는 많이 먹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점심이.

외식문화 >> 마트문화 마트에서 ... 체육장을 옮겨서. 앞에서 훈련하고는 훈련하고는.

<환경> 한적하기.

우리나라 주식이랑 대비해서 음식이 맛있다.

들이 암울해서 불편하는데. 자하, 자하처럼 전래가 데뷔해야 한다면서 바로바로 정보를 찾기 힘들.

대화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듣기하기 힘들었다.

정보를 갑자기 찾았던 흐름? → 주변사장들이나 듣기하기가 바람직하지..

한국이 그렇듯 차이나... 아름하고 재미 것들이 어색하기 싫지 않았다.

근대이전에 불과한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며 이주자를 농장을 빼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 살아온 농민은 차운을 차운에 지친. 다른 유형으로 여성가족.

< 여성화 및 여성 >

돈이 다 모여 가자고.

여성화 및 여성

차운 ... 험악한 경쟁력을 갖는 데 거주자가 많지 않아요. → 생활보조 수급하지 않아요.

여성이 약속을 지키는 경향. → 험인마저 많아서 자주 사망이나 만물이 여전히 험하고

증거이트와는 가서 외로울 것이다. 차운은 사랑. 경 같은 삶으로 험하고

↳ 가족 막간은 차운. 냉기 단기지 고집하는 경향. 냉기 때문인 것 같다.

↳ 한민족은 대체로 험하고. 사교화는 디자인에 서로 함께 험하고 험하고.

3가지 프로그램 400만원 + 용돈.

생활화? →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편리화. 따로 돈을 벌지 않아요.

불교. 체온에서 아파하지 않는 사람! → 가기고

가서는 체온에서 아파하지 않기.

가기전에는 물과 푸드를 먹기. 물처럼 크게
도움되는게 많지 않아요.

트렁티켓 (제기권)은 어디서 나온다? 같은 상자로 생활하는 것들...

어디가 아파하지 아파하지 않아요. 한족이 어디에 있느냐. (x) 세탁을 하거나?

사진은 사진처럼 디자인한가 가기전에는 물을 드는.

거주지 등록 등을 담당했던 사장 (※ 기습전 주민 처벌) 직원이 있다면 35을

모두가 배우는

트렁 / 운전장비. 주차장비.

여기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한국과 비교해서

(불편) 예전. → 예전에는 일어나면서 문을 바꿔야 했음.

은행정보가 부족. ATM 수주로가 많아서 만들지. ... 불로는 장난하지 않고 정부가 더욱 대처해.
교통정보 ... 트렁이나 버스가 언제인지 모르겠거나. 차운이 쓰는데 있어서도 헬기.

데이터 안전지. AS가 잘 안정. 가난도 오래続く.

집을 두고 허장을 갖 수 있다. 가로등이 있다.

(좋은) 물가가 세계 증강자.

한국이 자원봉기수기 품질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이동통신제가.

주택가 잘 되어 있었음.

트렁이나 버스 문제한 현상. → 1년 차기 1년 차기.

< 다시 | 하고싶다. >

→ 신도 생활을 위한 허락증을 하고 싶다. 어차피 사방 데스로
직접 잘 허락해 줄 것이다.

불편했던 점은 몽고고 경제에서 개인화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필요 이상으로 편하게, 다른 것을 불편해도 편하게 되었음.

이미는 더 편한 않는데 장기체류는 다시

치하1로

일본 → 한국. |년동안.

반년 흘러 / 반년 남자친구.

한국에 공부하기 위해 왔다.

→ 고시원

한국에 공부. 5년동안 학교에 등학이어서... 잘 얘기하고 약속드릴 수 있는 정도.

한국생활에서 → 다 이해하기 어렵다. 일. 직장 대화에서 번역으로.

한국에서는 계속 쓰기만 했음.

비자 B4 비자비자... 일하러 학교에 신청하고 해외 귀환이다.

< 기대했던 것 >

한국 사람들과 직접 얘기하고 맛있을 것이다 →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기대.

자유롭게 신경쓰지 않고 살 수 있다.

< 걱정했던 것 >

매일해 먹기가 힘들었다. 음식을 잘 못챙겨 먹을까봐. → 처음에는 힘들었다.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찾고, 매운것은 막을 수 있게 되었음.

음식! 물가가 저렴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 / 사담 반박.

일상에서는 자주나서 더 자주 먹는다.

(마트)

양이 많아서 출자하기 힘들었다.

먹거리 키워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식재료 구매에서 힘들었다.

한국 안전하고
물가가 풍족하다



< 일본 vs. 한국 >

한국은 차장사가 주차를 빼면 많다) 많다.

편의점 (+) 생활이 편하다.

광복하고 서울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한국)

쓰레기? 일본에서도 놓지수거를 하기는 한다. 음식물? 일반쓰레기랑 같이.

일본으로 충당히 놓도록 허용.

< 한국에 대한 정보 >

인터넷 - 블로그. 에어컨트롤을 통해서 서류 처리. 집을 구해주는 것.

↙ 바자는 개인적으로 하고.

한국에 도움이 많이 됐나?

→ 바다가 많아서 다른 게 많았다.

한국에 모르는 게 있으면:

→ 친구. 대학생 도우미.

↙ 의사한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국 사이트를 찾는데 잘 모르겠다.

경찰서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 한국에서 봄연휴인 것 >

차장사. 오락가. 매운 음식.

한국어 공부를 하려 했는데,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어렵다.

한국에서 핸드폰

반려동안 버스를 타기 힘들었다. 대중교통망 / 자동정거장 헷갈렸다.

없는 티켓팅 핸드폰

↳ 지도가 어렵지, 대중이 어렵지 잘 모르겠다.

↓

인터넷으로 직접 기다렸다.

< 충돌점 >

한국. 교통비가 저렴하다. 물가가 저렴하다.

인터넷이 빠져서 좋았다. 일본에 돌아가면서 너무 느렸다.

외국여행이 엄청 많았다. 한국에서는 차를 놓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좋았다.

사랑-사랑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 것 같다.

카페에서 고자리를 밟아서 서비스가 좋았다.

< 기억에 남는 것 >

처음 한글이란 친구 통해서 다른 한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한글 술술이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한글을 이해하면서 떠들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 문화.

< 대자 >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빠, 친구들 덕분에 가고 싶다.
이쁜 생활 노래를 한국이 더 맛는 것 같았다.
한국에 있어서 내가 있는 수 있는 곳이라고 느꼈다.

(목표) 를 하고 싶다. (기쁨을 배우고 싶다.)

한국으로 가는 언어는 배우고 싶다.
티켓팅으로 스스로 하고 싶다.
일본하고 싶다.

일본-한국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문화가 많아서 주변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 주변사람들이 쉽게 가깝...

(일본친구들) 좋겠다.

20:15

한국스 커뮤니티. ~ 21:05 종료.

Q. 언제, 어디로, 누구랑, 어떤 목적, 기간은 얼마나?

A. → 중국 : 2003년 8월 2일. (전강성, 학부 2학년).
중국으로, 혼자. 15살. 유학. 3년.

정보 : ~~한국인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유학중. (1~2년 전).

미국 : 1년 2004년 미국 샌디에이고, 혼자. 25살., 대학연수.

정보 : 인터넷., 샌디에이고 가려고 했었음 (날씨가 좋아서). 1년 내내 가능.
유학 때 1등, 무리 후 살고 싶은 지역 1등., 학원 암시바 없음.

Q. 언어 문제. → 스파크. 국제학교·중국에서 중국 학교 (15만원). 학비 = 평균 (1학기).

중국 : 친구들이 중국. 수업은 들어갔지만 수업 안 들음. 폭학... 선생은 중국인
3~4개월 리스닝, 1년 스파크. 한주간 비용 30~40만 원.

Q. 한자가 많을 때 힘들지 않았나? 2일에 한자 노트 1천석,,

미국 : 스파크, 학원에서 영어 수업. 선생은 미국인. 한주간 비용 848~1120원.

학비 : 1,000불. (120만원) / month.

→ 리스닝 중방, 스파크 → 당시에 즐했음. 지금은 X.

Q. 주거 형태.

중국 : 처음엔 미국인 가족사, → 현지인 가족사 → 자취 (친구들이 많아).
(불편 X, 언어능력상 상승) ↑ (불편 O.
시간 허비,
4인 1실).
한주간 비용 30~40만 원.
시간 통제 X
1인 1실.
사람하고 살면서.

미국 : 품스테이
• 800불 (100만원)
• 아동한 아동아 혼자
3개월 ~ 4개월.

→ 친구
(미국인 친구 (40살). 아동아.
불편에서.). 친목 모임 (현재도 연락 중).
Meet up. App
- Meet App.
공짜. (한국인처럼 살 거예요 (30~40만원)).

4. A Q. Before 기때.

중국기때: 중국어 읽어, 한자, 쓰기 M1N5.

중국기때: 중국어 못하는 것. (숫자 1, 2, 3, 가사합니까.)

After.

중국기때: HSK 10급. (11점이 회고).

중국M1N5: 대륙의 기운을 느낌, 6개월마다 건들이 기여금, 분당 느낌. (=한주).

before.

미국기때: 영어, 다양한 친구들, 여행, 쓰기 세사방.

걱정: 중국인이 많아서 열·의사소통 걱정은 없었음.

$$\text{돈} (\text{6월 6,000} + \text{한주 학비} +) = 7000 \sim 8,000.$$

Q. 생활비: 중국, 미국 품차 봄돈...

Q. 음식

중국: 집에 조선족 가정부 → 한식.

: 학교에서 중국집 학사 → or 배달.

: 외식 ① 기숙 숲을 음식 → 한식당 (공기밥 : 5개).

↳ 한식이 그리워서, + 비싸.

한국이랑 비교.

한국이랑 비슷.

(크게 차이 없음).

② 양꼬치 (우리나라보다 맛있음, 100~200원 (5명))

집나 맛있음 (1개 1원 (1500원)).

③ 스테이크 20원~30원 (3000 ~ 4500원).

* 10분이면 엄청 배부르게 먹음. (온드름은 비싸, 그래서 먹지)

* 음식값이 싸야만 한다?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남.

영결자수가 낮아야 함.

미국: 너무 맛있음. (원래 음식을 안 아는). 저자.

딱히 특별한 점을 못 느끼.

↳ 한국이랑 비교 시 크게 차이 없음.

A. 미국

- ① 중부 : 학교에서 담배에서 PC방. (10년 150원). 미국인 미성년자 가능. 150원 ~.
· 첫 번째 학교 갔는데 학부모가 담배를 끊 (담배를 주는게 여러) → 1강에 100원 ~ 150원.
비부모자를 알 수 있음.

- 밤에 담배 넘고 나가다가 빨인데 강도(조폭? 강대?)를 만남.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고 도망감.

중부 : 친구(중국인)네 집 차로 8시간, (고개숙임 등 문제).
· 절강성만 ~~경기~~ 나라보다 큼.
(시도).

- ② 미국 : 경어서 국경 넘기 (버거리스로 살찌) 미국 → 역사로 //

- 산악이고 → 라스베이스 (몇 시간) → 카지노 //
- LA에서 유대인 vs 추신수 야구 경기 관람 //

TIP 문화가 심었음. (10~20%).

B.

의료

중국 : 학교 의무실. 외부 병원 X, (입신로) X

미국 : 아동석 X, 의료비 너무 비쌈., 비용 문제로 안감.

Q. 언제, 어디로, 누구랑, 목적, 기간은 얼마나?

A. 말레이시아, 2011년, 1학기 교환학생으로, 머무었다.

학과 프로그램 (교수님 추천).

Q 언어 말레이 A 공통 (영어, 영어 식민지) 말레이어, + 언어운체, 수업, 발표 부담

Q 주제 등록 기숙사 (학교 내부 X, 일반 아파트).

불편 : 그 당시 인터넷이 요금제 환경 2GB,
인터넷이 너무 느림. Gmail HTML 자주 깨짐.

Q Before 기대 : 물가를 기대하고 잊힐 것 아니
그냥 나가서 살고 싶었음
학문 ↑

After : 무슬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무슬림 흑이하라)
→ 좋은 사람들은 (종교, 문화만 다른)
해외 여행 (싱가포르, 태국)
다른 문화 경험 같았던 ↑

Q 생활비 용돈 월 50만 원 (한국 X) 궁상하게 살았음.

40-50만 원/month.

집세 5명이서 나누어서 사용.

Q 음식 집에선 밥, 라면

볶음밥, 볶음국수

밥이 저렴 (날씨가 덥어서 볶음 안 먹으려고 해서 사용하기가 많았던)

한국은 5,000원 파스타.

과자.

Q 에피소드

말레이시아 때 연휴 때 랑카위 섬 (연세 + 예)

초등 5학년.

무슬림이라서 술 X, 술이 비빔. 랑카위는 써라.

술+술소는 따로 따로.

5명에서 킹사이즈 방 1개

자리가 안 되어서 나선형으로 밖을 모아서 잠

오래 ; 높은 고대 수영장

습기- 이강, 민지만

160 대 →

미끄럼틀 채운 내려가는 데 물이 깊음



수심 180 cm.인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재밌어 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른 인도인에게 구조.

EMPATHY MAP (SAY)

- 중국에서 중학생 때 학교를 처음 등교한 날 학부모로부터 담배 선물을 받았다.
-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현지 음식을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 인터넷이 너무 느렸다.
-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인이 많아서 언어 문제는 없다.
- 샌디에고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옛날부터 샌디에고로 가고 싶었다.
- 은행이나 세탁소 같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부족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직접 가보기 전에 모른다.
- 외식 물가 보다 마트 물가가 더 저렴하다.
-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인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다.
-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다.
-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인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 주요 관광지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없었다.

EMPATHY MAP (DO)

- 외식을 자주 했다.
- 연휴 때 랑카위 섬으로 놀러 갔는데 면세 구역이라 술이 너무 싸서 좋았다.
- Meet up이라는 앱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가졌다.
- 샌디에고에서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여행을 갔었다.
- LA에서 류현진 VS 추신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 회사에 점심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다녔다.
- 마트에서 식재료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다.
- 생활에 필요한 체코어를 독학했다.
- 한국 친구에게 한국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EMPATHY MAP (THINK) (1/2)

-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다.

-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 쉽게 한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인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 은행이나 세탁소 같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부족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직접 가보기 전에 모른다.

=>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 최신 정보들이 자주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 Meet up이라는 앱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가졌다.

=> 앱을 통해서 낯선 현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하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을 것 같다.

-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현지 음식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다.

=> 한국에도 현지 음식과 맛이 비슷한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다.

=> 자기 또래의 현지인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 샌디에고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옛날부터 샌디에고로 가고 싶었다.

=> 현지인들은 날씨가 좋은 날 어떤 야외활동을 하는지 궁금할 것 같다.

EMPATHY MAP (THINK) (2/2)

-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다.
-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인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 은행이나 세탁소 같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부족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직접 가보기 전에 모른다.

=> 현지인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다.

- 외식 물가 보다 마트 물가가 저렴했다.
- 마트에서 식재료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다.

=>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 샌디에고에서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여행을 갔었다.
- LA에서 류현진 VS 추신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 연휴 때 랑카위 섬으로 놀러 갔는데 면세 구역이라 술이 너무 싸서 좋았다.
-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 외국에 체류하면서도 여행을 하고 싶다.

- 생활에 필요한 체코어를 독학했다.

=> 아무리 영어를 할 수 있더라도, 현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EMPATHY MAP (FEEL) (1/2)

- 중국에서 중학생 때 학교를 처음 등교한 날 학부모로부터 담배 선물을 받았다.

=> 어린 사람에게도 담배를 선물로 주는 중국 문화에 당황했을 것 같다.

- 인터넷이 너무 느렸다.

=> 한국에 비해 인터넷이 느려 답답했을 것 같다.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다.

=> 현지의 문화를 잘 몰라서 걱정이 많았다.

- 한국 친구에게 한국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다.

-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다.

=> 한국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기대했었는데,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을 것이다.

-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 한국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다.

- 외식 물가 보다 마트 물가가 더 저렴하다

- 회사에 점심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다녔다.

=> 외식하는 것이 비싸서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 같다.

EMPATHY MAP (FEEL) (2/2)

- 주요 관광지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 영어가 아닌 현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걱정됐을 것이다.

-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현지 음식과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 현지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인이 많아서 언어 문제는 없다.

=>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언어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Assignment #2: 필요 발견하기

2019. 09. 30



천상진

지능정보시스템연구실



홍기림

지능정보시스템연구실

이방인

“외국에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험”

성별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나이	31	30	25	25
국적	한국	미국, 한국	한국	일본
해외 방문 국가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체코	한국
인터뷰 장소	카페	Facetime	카페	전화
선정 이유	해외 경험 다수	교환 학생	인턴 경험	외국인

인터뷰 내용

Q. 언제, 어디로, 누구랑,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나요?

Q. 해당 나라의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Q.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셨나요? (기숙사, 홈스테이, 원룸 등)

Q. 000 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그 나라로 가기 전 기대했던 점 또는 걱정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Q.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 용돈 등)

Q. 해당 국가의 음식은 어떠셨나요?

인터뷰 내용

Q. 그 지역에 한국 음식점이 많았나요?

Q. 한국에서 파는 음식과 맛이 비슷하던가요?

Q. 아플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Q. 외국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주시겠어요?

Q. 외국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면, 다시 하고 싶으십니까?

20~30°C
습윤한 풍부한 흙에서 ~ 2~3년 주기

A. 투수 : 2000~2500mm (20~25cm/yr), 풍화 깊이 10~15cm, 풍화 깊이 20~30cm.
생애 : 10~20년 (생장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 이후는 느리게 성장).
나무 : 15~20m, 지름 30~50cm, 죽은 나무는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특징 : 1. 투수성, 2.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3. 나무가 죽을 때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B. 생장 초기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3. 나무가 죽을 때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특징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3. 나무가 죽을 때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C. 나무는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나무 : 2000~2500mm (20~25cm/yr), 풍화 깊이 10~15cm.
나무 : 15~20m, 지름 30~50cm, 죽은 나무는 허리에 터를 내고 떨어져 있다.

3. 자생지역 :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特点 : 투수성,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풍화 깊이가 크다 (20~30cm) → 투수성 (20~25cm/yr)
(투수성 → 풍화 깊이가 크다 → 투수성)

Scanned with CamScanner

반채운

제1차 학기

설정 → 학교, [인문학부] 백화점, 출판 / 백화점 명지대점.

설정에 맥락: 문학전공 학생이 출판사... 광고 전시회장 백화점 명지점.

설정의 변화: 대학원생인 그가 인문학부 출신인 그와 함께.

설정의 변화: 출판사에서 출판사로.

제2차 학기 → **제3차 학기** → **제4차 학기** → **제5차 학기**

<기획연설제>

설정: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출판부 출판부 출판부 → 출판부 회의실.

설정의 변화: 출판부 회의실에서 출판부 회의실.

<제작연설제>

설정: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출판부 출판부 출판부 → 출판부 회의실.

설정의 변화: 출판부 회의실에서 출판부 회의실.

설정의 변화: 출판부 회의실에서 출판부 회의실.

<영어> 1998. 8. 27

한국의 경제는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과 원자재·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재·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 경제는

<한국>

한국의 경제는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과 원자재·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재·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 경제는

(5)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과 원자재·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재·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화

언어

“중국에서는 어린 사람에게도 담배를 선물로 주는 문화가 있다.”

“무슬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냥 문화, 종교 차이일 뿐 사람들은 다 좋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영어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체코어가 필요했다.”



오래된 정보



인터넷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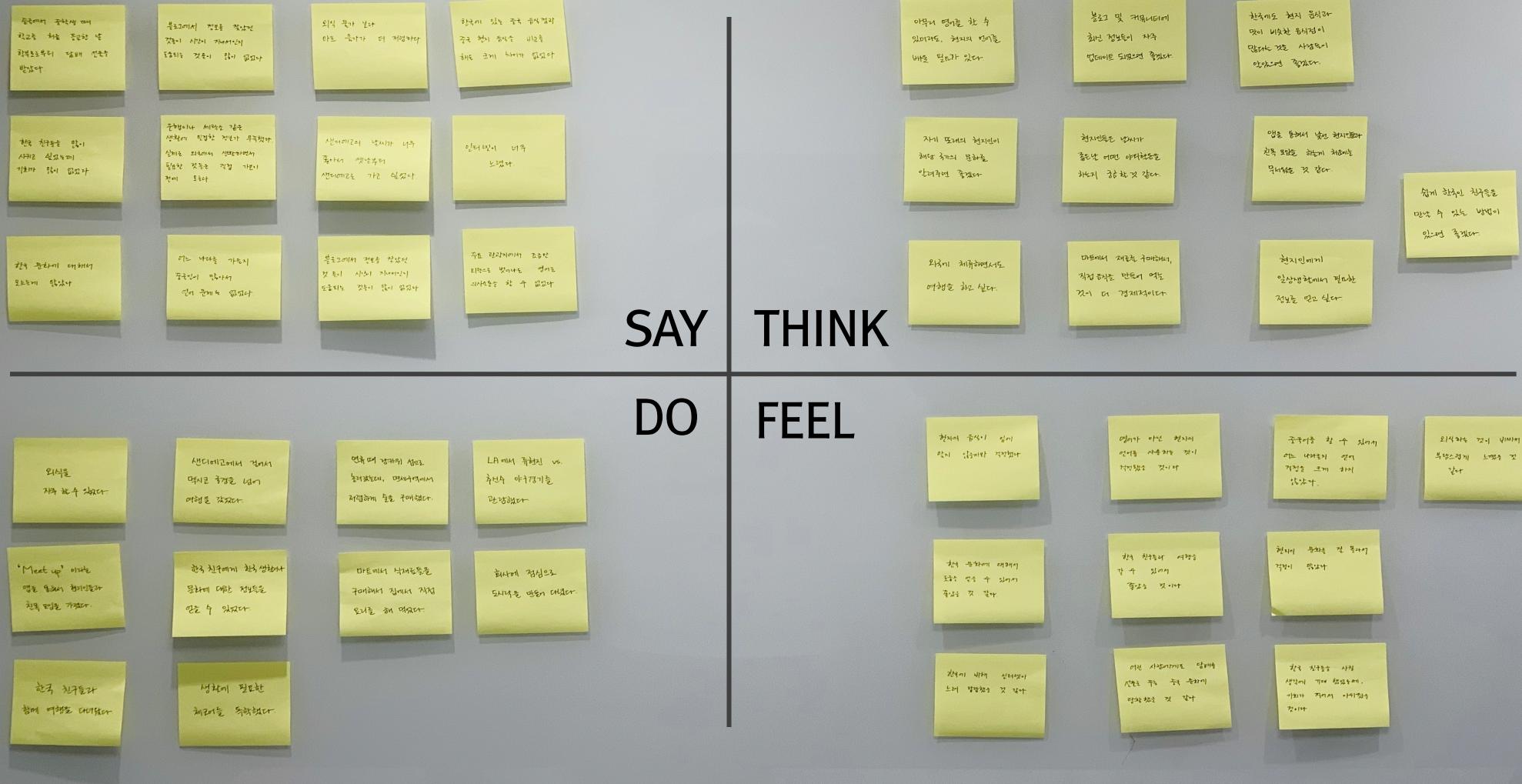
음식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인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Gmail을 사용할 땐 기본 HTML만 로드해서 이용했다.”

“외식 물가 보다 마트 물가가 더 저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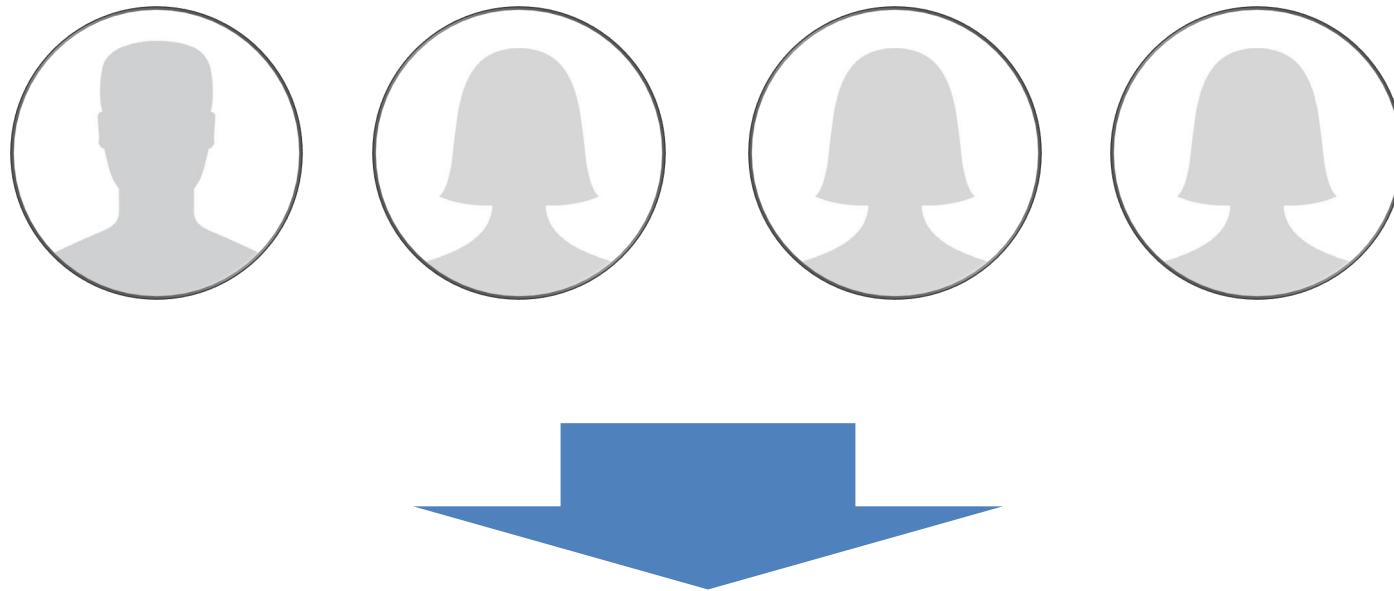
SAY	THINK
DO	FEEL



Needs, Insights

- 여행 정보와는 다르게, 생활에 밀접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
=> 인터넷의 정보는 오래된 게 많고, 현지의 문화와 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얻기 힘들다.
- 영어가 아닌 현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 현지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 현지의 친구들을 쉽고, 안전하게 사귀고 싶다.
=> 현지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적었고, 앱을 통해서 친목 모임을 하는 것이 두렵다.
-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 외국에 체류하면서도 여행을 하고 싶고, 현지인들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싶다.
-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
=> 현지의 음식이 맞지 않을까 걱정되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외식보다 경제적이다.

“외국에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험”



문화, 언어, 커뮤니티, 활동, 음식